GALLARY 회원문예

길

A Road

金琪碩/ 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람·광장
by Kim, Ki-Seok

길은 길어서 길이다
어깨힘을 빼고 발바닥을 뒷굼치에서 부터 붙이며
숨쉬듯 천천히 걷는 길은 언제나 길다
그때 길은 이미 투시도속에 있고
두 눈은 아스라한 소점 消點을 향한다
두 눈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한다

바삐 걷는 길은 길이 아니다
숨찬 사람은 길보다는 바닥을 보고
길을 가기보다는 바닥과 싸운다
급한 자에게 길은 사라진다
아름다운 투시도도 사라진다
소점도 사라진다

조바심을 굴려 더욱 커진 짐을 밀며 바닥을 보고 있는
시지프스의 땀에는 나이가 없다
향기로운 나이가 없다
그대 길을 걸으련가 짐을 굴리련가
냄새를 택하련가 향기를 택하련가

길은 길어서 길이다